

# 나주 노안남초, “자전거 하이킹으로 도전 정신·협동심 배워요”

### 전교생대상, 신체놀이·생태탐구 라이딩 활동 12년째 이어 ‘눈길’ ‘5월 역사’ 교육·제주 환경보호 캠페인·영산강 플로깅 등 진행

전남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함께하는 자전거 하이킹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네 발 자전거로 입문한 1학년 학생들이 멋진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섭렵하기까지, 도전정신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나주 노안남초등학교 이야기다.

노안남초의 자전거 하이킹은 2011년 시작됐다. 전교생 30명 이하로 폐교 위기를 맞았던 때, 작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활동을 고민하던 교직원들은 자전거 하이킹을 떠올렸다.

학교 바로 건너에 영산강이 내려다보이는 승촌공원을 달리며,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계절마다 다른 생태계를 돌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학부모들도 가까이 동참했다. 자전거 하이킹, 텃밭 활동 등 계절 프로젝트 홍보 전단지 등을 손수 제작해 뿌리며,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 덕에 현재는 전교생이 78명까지 늘었다.

노안남초는 학생 한 명당 자전거 한 대를

보급했다. 저학년은 우선 네발자전거로 운행 감각을 익혔고, 고학년은 자전거길을 달릴 때의 안전 수칙을 함께 배워나갔다.

하이킹 코스는 학년에 따라 차별화를 뒀 운영된다. 1~2학년은 승촌보 일대(3km), 3~4학년은 빛가람대교(15km), 5~6학년은 영산대교(20km) 구간을 왕복하는 방식이다.

나주 인근뿐 아니라, 왕복 50km에 달하는 담양도 다녀오고 지난해 5월에는 광주 극락초로 달려가 ‘5월 정신’을 배우고 오는 특별한 라이딩도 진행했다.

처음에는 도착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주제가 있는 하이킹’을 통해 영산강 동식물 탐구,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3년 전 5학년 5명 학생들로 꾸려진 ‘하늘자전거팀’이 240km 제주 자전거길을 완주하며, 제주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매주 30km씩 라이딩 하며 체력과 실력을 다져 온 결실이었다.

교사들은 전교생이 함께하는 첫 라이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가는 만큼 안전사고 걱정이 많았는데 학부모들은 물론 노안 청년회, 주민들이 함께 나서 손을 보태준 것이다. 12년이 이어온 지금은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날이면, 부러 나와 응원하는 반가운 마을 행사로 자리 잡았다.

노안남초는 매년 장비 재정비를 통해 현재 80여 대 자전거를 갖췄고, 자전거 관리 또한 학생들이 도맡는다. 올해는 운동장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해 자전거 트랙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 가을 라이딩은 오는 10월 11일(수)~13일(금) 생태탐방 및 환경정화활동을 주제로 전교생이 함께한다.

박숙현 노안남초 교사는 “자전거 하이킹은 내 고장의 생태를 돌보고 탐구하는 환경교육의 장이자,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놀이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교실 밖 자연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학생들과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완도 군외초, ‘섬진강 물길따라’ 가을현장체험학습 운영

학생과 교직원 30명, 1박2일 일정으로 진행



완도 군외초등학교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1박 2일) 학생과 교직원 30명이 섬진강 물길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 체험을 통해 우리고장 전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슬기로운 전라남도생활 「섬진강 물길따라」 가을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였다.

섬진강 줄기의 곡성기차마을을 방문하여 레일바이크, 기관차 탑승을 체험하고 인근에 위

치한 섬진강 어류 생태관 견학을 통해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지리산 인근 섬진강레프팅 도전 활동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등 자기주도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익일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여 향기로운 꽃과 울창한 숲 등 세계의 다양한 정원을 체험하였고 순천만습지에 있는 갈대밭과 갯벌 등 자연 상태의 생물들을 관찰하였다.

5학년 오하연 학생은 ‘완도에 살면서 배는 많이 타보았지만 강에서 보트를 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섬진강에서 보트를 타고 레프팅을 해보니 두렵기도 했지만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자연환경도 감상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군외초등학교 교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다양한 도전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함평영화학교, 2050 탄소중립실천



함평영화학교에서는 지난 4일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지9 하는 함평영화학교 선언식을 실시하였다. 2050 탄소중립실천 일환으로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본교에서는 ‘다회용컵 사용하기’를 1학교 1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올 한해 실천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1집중 실천행동으로 탄소저감 운동 실천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언식 내용은 탄소중립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실천행동을 학생회 임원과 교사가 함께 안내하고, 학생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본교에서 실천하는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

천행동은 1. 빈 교실 불끄고 적정온도 유지하기, 2. 물 받아 쓰고 아껴서 쓰기, 3. 월 1회 메일함 비우기, 4. 다회용컵 사용하기, 5.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6. 안 쓰는 물건 나눔하기, 7. 주 1회 채식 식단 운영하기, 8. 주 1회 음식 남기지 않는 날 운영하기, 9. 1인 1반려식물 키우기 등이다.

선언식에 함께한 고2 학생은 “평소에 양치컵을 사용하고, 우유곽도 씻어서 말려 화장지도 타고 그랬어요. 선언식을 통해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담당교사는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학교생활 중 수시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주셨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한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 선언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학생들이 탄소중립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함평=김광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